

월요광장

명(命)이 짧았던 호남 사람들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라는 멋진 말은 진리에 가까운 의미이다. 전체 시인으로 크게 이름이 알려진 백호 천제(林梯: 1549~1587)는 비록 서른아홉에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뛰어난 예술 작품인 한글 시조나 한시(漢詩)로 영원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뛰어난 한문 소설 몇 편이 예술인 백호를 잊지 못하게 해 주는 것도 한 역사적 사실이다.

예술과는 달리 학문의 세계는 꼭 그렇지 않다. 학자란 역시 오래 살아야 축적된 지적 성과에 의해서 저서도 많이 남기고 새로운 학설도 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큰 이름을 얻게 되며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 학파도 만들어지는 업적을 이룩할 수 있다.

근래의 강진 출신 시인 김영량(1903~1950)도 비록 4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으나 그의 유명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 한 편으로도 문학사에 찬란한 이름을 전할 수 있었다. 장흥 출신 옥봉 백광훈(白光勳: 1537~1582)도 수를 누리지 못한 시인이었지만 그의 뛰어난 예술 작품 때문에 조선에 대표하던 3당시인의 한 사람으로 천추에 이름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삶이아 아무리 짧아도 예술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다는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 시대에 호남을 대표하던 학자로서 허서 김인후(金麟厚: 1510~1560)와 고봉 기대승(寄大升: 1527~1572)을 꼽지 않을 사람은 없다. 허서야 문묘(文廟)에 배향된 국가가 떠받드는 18현인의 한 본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리학자로서 고봉을 당할 학자가 많지 않음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호남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이들 두 분에 대해 아쉬움이 많다는 것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다. 허서는 51세에 세상을 떠났고, 고봉은 그보다 더 짧은 46세에 세상을 떠난 학자였다. 무슨 이유로 그런 큰 학자들이 더 오래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서둘러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나 한창 저술을 남기고 강학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해야 할 51세와 46세에 세상을 떠난 허서와 고봉은 퇴계처럼 저술도 남기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만한 정도로 길러 내지 못하고 말았다. 허서와 고봉의 제자 중에서 이름을 알 만한 인물로 누구를 꼽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호남의 학자들은 그렇게 명이 짧았던 말인가.

호남학을 생각하다 보면 언제나 이 대목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할 사람은 없다. 허서야 문묘(文廟)에 배향된 국가가 떠받드는 18현인의 한 본임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성리학자로서 고봉을 당할 학자가 많지 않음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김인후와 기대승의 높은 학문적 업적을 이어받아 조선 후기에 마침내 조선을 대표할 큰 학자가 호남에서 배출되고 말았다. 장성에서 일생 동안 학문과 저술로 삶을 마친 노사 기정진(奇正眞: 1798~1879)은 82세라는 장수를 누리며 엄청난 성리학 저술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 냈다. 마침내 호남의 기정진에 이르러 조선의 성리학을 최고 수준에 오르게 한 업적이 이룩된 것이다.

‘유리론(唯理論)’이라는 가장 독창적인 성리학 체계를 새롭게 창안하여 호남의 제자들 이외에 서남부 영남 학자들이 대거 문하로 들어와 ‘노사학단’, 즉 호남학파가 명실공히 세워질 수 있었다. 한말 조선 3대 학자로 경기도의 화서 이항로, 영남의 한주 이진상과 나란히 거명되지만 노사는 그중에서도 최고의 학자임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다.

이제는 허서·고봉·노사의 학문을 이어받아 후학들이 더 융성시키는 일만 남았다. 우리 모두 힘쓰자.

법조칼럼

선입견과 경청



이 장 우
광주지검 검사

검사로서의 수사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웬만한 형사사건은 조금만 기록을 넘겨보면 사실관계가 곧 파악되고 급방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곤 한다. 작년 여름 광주지검에 부임 후 얼마 되지 않아 경찰 ‘협의없음’ 의견 송치 사건 하나를 배당받았다. 사기 고소 사건인데,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6년 전 1000만원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있으니 처벌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에는 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현금차용증’이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1000만원을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였고, 경찰 수사결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위 1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모두 변제받은 사실이 거래 내역으로 확인됐다.

13년차 수사경험으로 보건대 이 사건은 딱 떨어지는 무고 사건이었다. 빌린 돈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고소인 본인의 계좌로

는 받지 않은 점, 현금차용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던 점 등을 악용해 다시 한 번 1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6년이나 지나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임이 명백해 보였다. 고소인은 파총부 일이나 공공근로를 하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아주머니였다. 고소인을 처음 불러 고소 이유를 물어보니, 6년 전 일이라 돈을 모두 돌려받은 사실을 깜빡해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생활형편에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돈을 돌려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해 6년 뒤 과거 현금차용증을 첨부, 고소했다는 것이 잘 납득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 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다시 불렀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고소인에게 1000만원을 1회 빌려준 것이 아니라, 2회 빌려주었는데 그 중 10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000만원은 돌려받지 못해 고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었다. 물론 피고소인은 펄쩍 뛰었다. 피고소인은 1000만원을 1회 빌렸을 뿐이고 모두 갚았는데 고소인이 엉뚱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필자는 고소인을 상대로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허위고소를 하면 되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계속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6년 전 1차로 피고소인에게 1000

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빌려주고 3일 후 다시 1000만원을 더 현금으로 빌려주었는데 현금으로 빌려 준 100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수표로 빌려준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이제야 생각났다고 했다.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곧 무고죄로 입건하려 했으나 고소인이 제발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며 수표 추적을 해달라 고했다. 그러나 5년이 넘는 수표를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을지 의문이었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갚겠다고 하는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에 관한 정보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의 기억을 따라 현장 탐문 끝에 최초로 수표를 발행한 참고인을 찾아내 조사하고, 2회에 걸쳐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수표추적한 끝에 해당 자기앞수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필자와 수사관은 수표 배서면을 보는 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소인이 자필 배서를 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다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하자, 피고소인은 그제서야 고소인에게 현금 1000만원과는 별도로 같은 시기에 자기앞수표로 1000만원을 빌려 귀금속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필자와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를 의심했던 점을 사과했다. 그러나 고소

인은 오히려 자기가 처음부터 1000만원을 2번 빌려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무고의심을 받게 된 것이라며 미안해 했고, 검찰수사 덕분에 자신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000만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오히려 고마워 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를 받는 동안 부담감에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는데, 검사로부터 수표추적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부터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가량이 지나 고소인으로부터 편지가 1통 도착했다. 수표추적결과가 밝혀진 후 검사실에서 피고소인과 마지막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너무 고마워 조사 도중 눈물이 나왔지만 차마 수 수 없었고, 이번 조사를 통해 검찰청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 곳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1000만원짜리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3번의 대질조사, 현장탐문, 참고인조사, 2회에 걸친 계좌추적 등을 진행했지만, 결국 의도했던 무고인지는 하지 못했고 그 사건은 그렇게 끝났다.

그렇지만 필자는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아무리 뻔해 보이는 사건도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다는 것과 사건 관계인의 말이 터무니없이 보여도 끝까지 경청해야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초임검사 때부터 오랫동안 들었던 평범한 교훈이었다.

기 고

전남 어촌에 청년이 돌아오고 있다



양 근 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

전남의 어촌에 때마다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어가 소득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귀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전남의 드넓은 바다와 갯벌, 수많은 섬과 긴 해안은 세계 어느 지역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수산물, 아름다운 경관, 독특한 문화, 친근한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연의 수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남 어촌은 가난하고 떠나는 대상이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웠지만, 이제 이를 뒤집는 통계들이 하나 둘 발표되고 있다.

먼저,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 어가 인구는 4만4262명으로 전년도 보다 444명 늘었다. 50세 이상의 인구가 284명 줄었는데, 50세 미만의 젊은층 인구는 728명이나 늘었다. 전남의 어촌에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다.

두 번째 ‘2016년 어가 경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어가 평균소득은 470

만원으로, 2015년 4389만원 보다 7.2% 늘었고, 평균자산은 15.7%나 오를 4억8900만원이었다. 40대 이하의 어가 소득이 1억102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1% 늘었고, 자산은 7억4355만원으로 44.6% 상승했다. 젊은이들이 대담한 투자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통계다. 어로 어가는 3802만원으로 0.7% 감소한 반면 양식어는 7185만원으로 17.0% 소득이 상승했다. 김이 해조류 양식어가의 수입은 65.6%나 늘었다.

전자는 “젊은 사람들이 전남 어촌으로 돌아오고 있다”, 후자는 “양식어가의 소득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남 어가의 소득 상승과 인구 증가는 당연히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즉 전남 어촌의 어업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해조류 양식을 하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전국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해조류의 가치가 제조되며고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고 양식어업을 하려는 귀어 도시민들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이 같은 통계와 전망을 고려하면, 구석난 시대에 일자리를 찾고 있는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전남의 해조류 양식어업은 한번 도전해볼 만한 창조적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귀어를 꿈꾸는 도시민에게는 전남의 어촌은 이상향이 될 수 있다. 전남

은 지난해 수산물 생산액 2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양식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71%를 넘어섰다.

앞은 귀어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해조류 양식장 역시 대부분 전남에 있다. 김은 76.3%, 미역 86.2%, 다시마는 91.3%를 전남에서 생산한다. 전남 수산물 수출 효자품목인 김은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일부 지역은 물론 미국, 유럽에서도 즐겨 먹고 있다. 스페 김과 같은 가공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90개국에 3억5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거기에 수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수산물 소비가 늘면서 미래 수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1960년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9.9kg에 불과했지만, 지난 50년간 연평균 3.2%씩 증가해 2013~2015년 평균은 20.2kg, 2025년에는 21.8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수산양식을 꼽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화 이전에 전남의 농수산업은 국가 경제의 큰 축이었다. 산업화 이후 몰래 받았던 전남의 농수산업은 이제 다시 유명산업을 주목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전남도는 전남 수산업의 성장과

이를 통한 어민과 귀어 도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양식장 도입을 서두르는 등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으로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떠난 젊은이들이 이제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것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귀농, 귀어, 귀촌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함 없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제 농어촌은 노력만 만큼 소득이 보장되는 곳으로써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터전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도시 젊은이들이 전남의 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어촌계 가입 문제를 비롯해 귀어 준비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우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지역공동체도 미래를 내다보고 귀어 도시민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남 어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전제다.

전남 어촌에 청년층 인구가 늘어나고, 어가 소득도 상승하고 있다. 어가 소득이 몇 년 안에 도시근로자 소득을 추월할 것이라는 기분 좋은 전망도 나온다. 도시 청년들이 전남의 어촌에서 미래를 준비해 보면 어떨까? 바다는 늘 그랬듯이 우리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풍성한 선물을 제공할 것이다.

社 說

방사선 검사업체 직원 피폭… 회사는 뭐했나

여수에서 작업 중이던 방사선 투과검사 업체 직원 10명이 방사선에 집단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방사선 투과검사는 용접 등이 잘 됐는지 방사선을 이용해 알아보는 ‘비파괴검사’의 일종이다. 피폭자들은 여수 플랜트사업장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폭된 직원 중 일부는 백혈병 발병 전 단계인 재생불량성 빈혈(약성 빈혈)로 판정나기도 했다. 방사선을 이용해 작업을 하는 종사자 안전 관리에 허점이 노출된 것이다. 더군다나 회사가 사고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던 중 A업체 여수사업소 직원 문 모(32) 씨 등 10명이 허용치를 넘어서 피폭된 사실을 확인, 조사 중이 라고 최근 밝혔다. 원안위는 안전관리 소홀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업체의 여수 작업장 일부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원안위는 A 업체의 안전관리자가 작업 현장을 미리 확인하거나 피폭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과 A 업체에 일을 맡긴 이 지역 4개 업체가 작업량 정보를 원안위에 허위로 보고한 점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조사를 거쳐 이들에 대해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선 취급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회사와 노동 당국의 태도다. 방사능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성물질인 만큼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검찰 고발과 행정처분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번 여수사업소 노동자 방사선 피폭 실태를 비롯하여 비파괴 검사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안전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를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황금연휴가 서러운 중소기업 근로자들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징검다리 휴일인 근로자의 날(1일)과 석가탄신일(5일) 어린이날(5일) 그리고 주말 공휴일에 이어 대통령선거일(9일)까지, 지난 29일 토요일부터 세면 최장 11일까지 쉴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황금연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대기업과 공기업 및 금융기관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다. 전체 기업 수의 99%와 고용 비중에서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는 ‘남의 집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체 250곳을 조사해 봤더니 평일인 징검다리 연휴에 쉬는 곳은 절반에 불과했다. 더구나 50.4%는 대통령선거일에도 쉬지 않으며 1일 근로자의 날은 34.1%, 3일 석가탄신일에는 23.7%가 정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심지어 5일 어린이날에도 11.1%는 쉬지 못하고 출근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 200여만 명이

해외여행 길에 오르고 벌써부터 유원지마다 행사각들로 붐빈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더군다나 어린이날도 쉬지 못하는 처지의 근로자들에게 황금연휴가 오히려 서러운 연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백에 이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지난달부터 공직 사회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한전 등 공공기관도 이달부터 일정 시간 초과 근무하고 하루는 단축 근무하는 ‘가죽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한다.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이 시작됐다. 주머니도 가벼운데 쉬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된 수당까지 받지 못한다면 제탈 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연휴 마지막 날이 대통령 선거일이다. 대선 후보 중 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시간이 멈춘 시계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1995년 4월28일 오전 7시52분께, 대구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에서 가스폭발로 101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형참사였던지라 선배 기자를 따라 대구로 취재를 떠났다. 당시 입사 2년차 신참 기자였을 때의 일이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유독 중고등학교 생활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마침 등교시간에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곳을 지나던 버스를 덮쳤기 때문이다.

사고 다음 날 유류품을 모아 놓은 현장

멈춘 시계

를 보게 됐다. 전지시계가나 비닐시계 서너 개가 가방과 함께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계가 7시5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폭발 시 충격으로 인해 시간이 멈춘 것이었다.

유족 중 한 어머니가 그 시계를 발견한 곳 여러 곳이었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앞에는 3시30분에 서버린 시계탑이 있다. 1958년 2월6일 3시30분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승진 선수와 서포터즈, 기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몇 시에 멈춘 것인지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머칠 전 세월호 조타실 내부 사진이

공개됐다. 오전 10시17분에 멈춘 벽시계였다. 세월호가 완전 전복된 시간으로 추정된다. 전기로 작동하는 벽시계가 침수로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멈춘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마지막 카톡 대화 시간도 10시17분이었다.

멈춘 시계를 유난히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이 일본인이다. 고베 시내 건물 곳곳의 벽면에는 5시6분을 가리키며 일어난면서 그곳을 지나던 버스를 덮쳤기 때문이다.

1995년 1월17일 5시6분에 규모 7.3의 대지진이 발생해 6434명이 사망했다. 나가사

키 원목자료관에는 11시2분에 바늘이 고정된 벽시계가 있다. 1945년 8월9일 원폭 투하로 멈춘 선 벽시계이다.

이 밖에도 참사의 비극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멈춘 시계를 간직하는 곳은 여러 곳이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앞에는 3시30분에 서버린 시계탑이 있다. 1958년 2월6일 3시30분에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승진 선수와 서포터즈, 기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이 멈추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